

주목! 이사람



강남경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22일 오전 11시 호벨프라도에서 열리는 12월 전남축산운영협의회에 참석한다.



이홍목 농협광주지역본부장은 22일 오전 10시 강진 농항마을에서 열리는 (자)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4분기 정기이사회에 참석한다.



하대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2일 동결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 취약시설 현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SW융합 현주소 점검

오늘 김대중센터서 토론회

소프트웨어(SW)융합 분야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최신 정보와 트렌드를 만나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전남 SW융합클러스터사업단은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SW중심사회 확산을 위한 '2016 에너지 SW융합 오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SW융합, 경계를 넘다'로 2명의 연사가 특강에 나선다.

구글코리아 김태열 상무는 '디지털 혁신과 창의적 관점이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SW와 비즈니스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한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이경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사람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SW와 인문학에 대해 강연한다. 매 강연이 끝난 후에는 강연자와 청중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거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광주·전남 SW융합클러스터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SW중심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며 "오픈콘서트로 진행되는 만큼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해 다채로운 의견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온오프믹스 홈페이지(http://onoffmix.com/event/86528)에서 사전등록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 SW융합클러스터사업(061-339-6945)로 문의하면 된다.

/황애란 기자



중기 32.6% "올해 자금사정 악화"

비은행 금융기관 자금 활용 증가 내년 신위탁보증제도 도입 우려도

■중기중앙회 '금융 이용 실태조사'

올해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기중앙회가 전국의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예외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32.6%는 "올해 자금 사정이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50.1%는 '전년과 비슷하다'고 17.3%는 '원활하다'고 답했다.

자금사정 관련 원인으로서는 판매부진(43.9%), 영업이익 감소(32.7%), 판매대금 회수지연(19.4%), 제조원가 상승(7.1%)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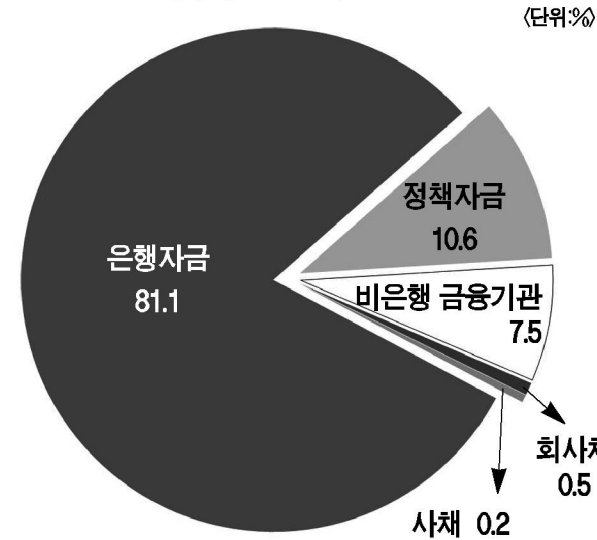
응답자의 88%는 올해 외부자금 이용경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자금 조달 형태는 은행자금(81.1%), 정책자금(10.6%), 비은행금융기관자금(7.5%) 순이었

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자금 활용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6.6%p 증가, 은행 대출심사 강화로 중소기업의 비은행 금융기관 활용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예금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차이는 2배에 달한다.

금융기관 자금 차입시 대출 조건으로는 부동산 담보(44.6%), 순수신용(25.1%), 신용보증서(17.2%), 예·적금 등 담보(5.9%), 연대보증(5.3%), 은행자금 보증(1.7%) 순이었다.

금융기관 자금조달 상황으로는 높은 대출금리(32.2%), 까다로운 대출심사(30.3%), 대출한도 부족(16.3%), 과도한 부동산 담보요구(15.5%), 신용보증서 위

◇외부자금 조달 수단별 비중



주대출(11.4%) 등을 꼽았다.

신보, 기보 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이용과 관련해서는 53.4%는 '원활하다'고 응답했다. 보증기관의 바람직한 지원방향으로는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의 탄력적 운용(30.0%), 보증료 인하(23.3%),

서류 간소화(17.85%), 연대보증 제도개선·폐지(13.3%), 비재무적요소 심사비중 확대(12.2%), 보증 제한요건 최소화(11.1%) 등을 우선 과제로 꼽혔다.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과제로는 정책금융 저리지원(40.0%), 장기자금 지원(37.0%), 담보대출 관행개선(25.0%), 관계형 금융 활성화(23.0%), 경기 불황시 중소기업 대출 축소 관행 개선(22.3%) 등이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 위탁보증제도와 관련해 주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도입 유보'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신 위탁보증제도는 10년 이상 보증한 장

기보증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발급

업무를 은행에서 위탁하는 것이다. 은행이 위탁 보증총량 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기업과 보증비율(85~50%)을 선택하고, 리스크가 큰 한계기업은 보증을 축소한다. 신·기보로부터 부여된 대위변제 총량을 초과한 부실은 보증기관이 아닌 은행이 손실을 부담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신 위탁보증제도 도입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에 따라 10년 이상 업력기업의 대출한도 축소, 대출금리 인상으로 자칫하면 우량기업의 흑자도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2017년부터 즉각 시행하는 것 보다는 10년 이상 업력기업의 대출 축소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신 위탁보증제도를 내년 초부터 시행할 경우 당초 목적과 달리 우량기업 자금공급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은행·중소기업계와의 면밀한 의견수렴을 거쳐 피해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한전KDN이 지난 20일 본사 빛가람홀에서 개최한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생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한전KDN, 대학생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시상

32개팀 참가...조선대 'CusCus' 팀 대상

한전KDN(사장 임수경)이 20일 본사 빛가람홀에서 개최한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생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에너지밸리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대학 인재를 육성하고 신기술분야(ICBMS)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월 30일까지 공모를 거쳐 시행된 이번 대

생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는 지역 대학생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총 32개 팀이 참가했다.

한전KDN은 참가한 32개팀들의 작품을 중 1차·2차 심사를 거쳐 21개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Beat

nearphone으로, 청각장애인들이 들을 수 있는 휴대용 뮤직 시스템을 출품하여 큰 관심을 끌었던 조선대학교 'CusCus' 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전남대학교 '전기저금통' 팀과 조선대학교 '에너지제로' 팀이 수상했다.

한전KDN 임수경 사장은 "지나해 이어 개최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한전KDN이 ICT전문기업으로서 모범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호남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 노력"

익산국토청, 제4차 안전실천협의회 개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하대성)은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및 전북지역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건설제해 예방을 위한 '제4차 호남지역 건설공사 안전실천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광역시청, 전남·북도청, 군산해양수산청, LH 전북·광주전남본부, 도로공사

전북·광주전남본부, 수자원공사 전북·광주전남본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안전보건공단,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건설안전 아이디어 경진대회, 건설안전 캠페인, 안전체험교육 등 협의회 활동을 결산하고, 앞으로의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건설안전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작 9편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하대성 익산국토청장은 "금년 협의회 활동을 통해 11개 호남지역 발주기관은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과 함께 건설안전에 대한 전 국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호남지역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당부했다.

/서미애 기자

SKT, 통신 1위 업체와 손잡고 5G 개발

에릭슨, 퀄컴과 글로벌 표준 기지국·단말기 개발

SK텔레콤은 세계 통신분야 1위 업체인 에릭슨, 퀄컴과 글로벌 표준화 단체인 3GPP가 정한 5G 규격을 기반으로 기지국 장비·단말기 프로토타입의 설계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SK텔레콤, 에릭슨, 퀄컴은 각각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칩셋 분야의 1위 업체다.

이들은 1차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에 상호 연동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백 MHz 초광대역폭을 활용할 수 있

는 6GHz 이상 주파수 대역과 넓은 커버리지를 보장하는 6GHz 이하 주파수 대역에서의 장비·단말기 개발을 동시에 추진한다.

내년으로 예정된 상호 연동 테스트는 3GPP 표준안이 최종 결정되는 2018년 상반기보다 앞선다. 이는 사실상 3GPP가 정하는 5G 표준안에 대한 최초 검증 및 기준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황애란 기자



광주본부세관은 21일 휴대용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정인 가운데 세관직원들이 면세관련 품목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세관, 면세 초과물품 집중 단속

광주본부세관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휴대용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면세점 고객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때 정밀검사를 하고 동행자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여행자가 면세범위(1인당 미화 600달러)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

해야 한다. 자진 신고 때에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다른 사람 물건을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압수뿐 아니라 미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미애 기자

Advertisement for 'K' international hearing aids. Features text: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쳐보세요", "자연의 소리...", and contact information for branches in Seoul, Suwon, and Busan.